

## 업체탐방

고분자섬유과 공업연구사 임완빈

02)509-7244 wbim@ats.go.kr

경부고속도로 금강변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업무상 처음 방문하여 정문을 들어서자 “신뢰와 가치를 세계로”라는 현수막이 나를 반겨주었다.

나를 반겨준 현수막의 글귀를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고객에게 고품질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는 가치를, 구성원에게는 보상과 자부심을 심어 주어 다각화되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21세기 신 비전으로 선포하였다”고 설명해 주었다.

한국타이어는 1941년 회사 설립 이래 “인류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경영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60여년간 타이어산업만을 걸어 온 회사이다. 한국의 대전, 금산과 중국의 강소, 기흥에 4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진에서부터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전 임직원이 경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무 분규의 성숙한 노사관계를 이루어 전 임직원이 제품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동 업종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다.

2000년도에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2001년에는 우수산업 디자인선정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에 힘입어 현재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눈보라 치는 혹한의 시베리아까지 전세계 170여개국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소비자의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즉시, 해당 본사에서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직접 알려 주는 VOC

(voice of customer)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객 중심의 one-stop service를 도입하여 사전 예방적 service활동에 주력하고, 고객이 만족할 때 까지 A/S를 실시한 결과,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 고객만족 1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기존 타이어 공장은 공해배출업체라는 선입감을 지울 수 있도록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오폐수 처리 시설을 완벽히 갖추어 환경친화적인 공장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고, 또한 작업장의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 수준이었다. 공장 여러 곳에는 이곳이 공원인지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정원의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고, 깨끗하면서도 정리 정돈된 공장은 근로자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러한 공장 내의 환경으로부터 제10회 한일 TPM대회 우수 기업상과 제2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설비관리대상을 수상한 회사임을 알 수 있었다.

창업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감한 R&D 투자와 공격적인 세계시장 개척을 통해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타이어 업계에서 세계 10위의 매출규모를 자랑한다. 이러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타이어는 2007년 세계 5위의 타이어 메이커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생산, 마케팅, R&D의 글로벌 별화”를 진행하고 있다.

과감한 R&D 투자의 결과, 국내 최초로 발포 고무 타이어, TCT 설계이론 등을 개발하여 타이어의 품질과 성능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기업이 되었다. 또

한 한국타이어는 포드, 볼보, 르노, 다이하츠, 미쯔비시, 폴크스바겐 등에 연간 5000만불 규모의 타이어를 납품함으로써 그 품질의 세계적인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이러한 품질의 우수성은 99년 독일의 유력한 자동차 전문지 "AUTO"誌와 "MOT"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세계 타이어 테스트 1위 프랑스 Auto Plus 지 선정 유럽 1위 그리스 1위 등을 차지하여 각종 세계 타이어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지난 2000년에는 프랑스 최대 잡지인 Auto Plus지가 세계 유명 브랜드인 미쉐린, 피렐리, 콘티넨탈과 한국산 등의 제품을 가지고 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10개 세계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타이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한국 타이어 중국 공장산 "King Sart" 제품이 1위를 차지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굿이어, 미쉐린, 브릿지스톤 등의 세계 3대 타이어 회사와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 임직원이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연간 8~9%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비한 이후, 한국 타이어는 중국 공장에 전사적인 지원을 하여 중국공장의 경영 자생력 및 수익성을 극대화한 다음 중국 내 1위 업체로 자리를 잡을 계획으로 있다. 이어 2003년에는 유럽과 북미에도 현지 공장을 세워 연간타이어 생산 1억본 체제를 갖춰 세계 5위의 타이어 업체로 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중국법인 별도) 2001년 총매출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한 1,344억2천42만원, 전년 대비 경상이익 30% 증가한 438억원, 전년대비 34% 증가한 순이익 304억원을 달성하였다. 올 2002년 매출을 전년보다 10% 증가한 1,355억388만원, 경상이익 476

억원, 순이익 33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배경은 생산구조조정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성공적 ERP 시스템에 의한 프로세스 표준화로 재료비, 인건비, 생산변동비 감소,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가 2001년도에 신(新) 경영비전으로 "신뢰와 가치를 세계로"라고 선포한 현수막의 내용을 노사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여 힘차게 걸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 ■ 한국타이어 공장 현황 소개

##### 1) 대전공장

1979년 완공된 대전공장은 래디얼 타이어생산 전문 공장으로 1980년대 한국타이어 성장의 원동력이 된 주 공장으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2,300만개의 래디얼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 2) 금산공장

1994년 착공 1997년 1차 준공, 현재 연간 770만본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고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Green Factory Concept이 적용된 신 타이어 공장으로 금산공장은 21세기 한국타이어 주력 생산기지로 2007년까지 총 5,460억원이 투입돼 연 1,150만본의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3) 한태운태 유한공사(가흥공장)

1994년 중국 절강성 가흥시 경제개발 특구에 설립돼 래디얼 타이어와 튜브를 생산하고 있고 2001년 연간



280만본의 타이어, 520만개의 튜브생산을 생산 하였다. 또한 2003년에 증설이 완공될 예정이고 연간 525만본의 래디얼 타이어와 600만개의 튜브를 생산할 수 있다.

4) 강소한태윤태 유한공사(강소공장)

1996년 강소성 회음시에 위치한 청강타이어의 경영

권을 인수해 설립한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로 연간 110만본의 바이어스 타이어와 200만본의 래디얼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음. 2004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연간 125만본의 바이어스 타이어와 270만본의 래디얼 타이어를 생산하게 된다.

